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신임투표 실시 합의

지난 4월 11일 쿠데타 발생 1주년을 맞아 베네수엘라 정부와 반정부 연합은 차베스 대통령의 임기의 절반이 지나는 8월 19일 이후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초 상공인연합회(Fedecamara) 및 노동자연맹(CTV)의 총파업으로 촉발된 베네수엘라 사태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3일간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대통령의 축출에 실패한 반정부 연합은 파업 종결 이후 페르난데스 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구속되고 오르테가 노동자연맹 의장이 코스타리카로 망명하는 등 지도부가 와해되었다. 더구나 민주행동당(AD) 등 기존 야당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반정부 연합도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베네수엘라 정국의 주도권은 차베스 대통령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합의된 신임투표 실시안도 차베스 대통령이 선호해 온 방식으로 차베스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승리할 것을 장담하고 있으며, 패배하더라도 새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투표 실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국불안은 지속될 듯

차베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반정부 연합은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2월의 신임투표 실시가 불가능해지자, 반정부 연합은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및 미주기구(OAS)의 중재안¹⁾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총파업을 종결한 바 있다. 이후 차베스 정부와 반정부 연합은 2월 19일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1) 동 중재안은 차베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을 실시하거나, 6년 임기의 절반이 경과한 2003년 8월 19일 이후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는 두 가지 방안이었음.

6개국으로 결성된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을 위한 우호 그룹”(Grupo de Países Amigos de Venezuela)과 OAS의 중재로 폭력사태 중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反정부 연합은 카터 前 미국 대통령 및 OAS의 중재안이 그 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온 내용에 근접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배경으로 차베스 퇴진운동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총파업 철회 이후 反정부 연합의 지도부가 와해되었으며, 총파업 주도세력인 국영석유공사(PDVSA)²⁾의 反정부 세력도 경영이사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38,000명 가량의 근로자 중 총파업 가담자 약 16,000명이 해고됨에 따라 힘을 잃은 상황이다.

하지만 총파업 철회와 비폭력협정 체결, 신임투표 실시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정국불안 재연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의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反정부 연합도 비록 힘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베스 대통령도 노조의 파업철회 선언을 자신의 對야당 강경 노선의 승리로 규정하는 등 기본적으로 야당에 대해 비타협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베네수엘라의 정국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듯

정국불안으로 인해 지난해 극도의 침체를 보인 베네수엘라 경제는 금년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총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16.7%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표〉 베네수엘라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경제성장률	-6.1	3.2	2.8	-8.9	-12.1
재정수지/GDP	-1.6	-1.7	-4.2	-2.9	-3.6
소비자물가상승률	23.6	16.2	12.5	31.2	40.6
경상수지	35.6	130.3	39.3	78.5	65.0
경상수지/GDP	3.4	10.8	3.0	8.6	9.4
상품수지	76.1	175.4	93.4	141.5	127
수 출	208.2	330.3	267.3	264.4	226.0
수 입	132.1	154.9	173.9	122.9	99.0
외환보유액	122.8	130.9	92.4	89.9	150.0
총외채잔액	381.9	382.0	378.0	359.0	350.0
총외채잔액/GNP	37.5	32.0	34.6	40.0	52.3
D.S.R.	23.7	15.3	23.0	21.5	25.5

자료: EIU, Country Report 각호.

2) 차베스 대통령은 GDP의 40%, 총수출의 80%, 정부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를 위해 PDVSA를 동서지역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PDVSA의 관리직 노조가 총파업에 적극 가담하는 계기가 되었음.

전체로는 -8.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도 외환통제 및 생필품 가격 통제 그리고 정국불안에 따른 투자위축 등이 겹쳐 경제성장률은 -12.1%로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계속된 외환거래 일시 중단 조치에 이어 2월 6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외환통제³⁾로 인해 필수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산업생산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2월 총파업으로 급감한 석유생산의 회복 속도와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경제침체의 정도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베네수엘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총파업 기간 중 최저 15~20만 배럴에 불과하였던 1일 석유생산량이 4월 현재 320만 배럴로 이미 파업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발표 내용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PDVSA 해고 근로자측은 1일 석유생산량이 200만 배럴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석유생산 피해 복구는 분명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 국제유가의 움직임⁴⁾에 따라서는 베네수엘라의 경기침체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환통제 실시 당분간 지속될 듯

한편, 2월 6일부터 실시중인 외환통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환사정을 감안하여 외환통제 해제와 고정환율제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3/4분기 중 일정 범위내에서 환율변동을 허용하는 밴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외환통제 실무기관인 외환관리위원회(Cadivi)가 발표한 외환통제의 주요 내용은 중앙은행이 수입용 외환배정 계획을 작성하면 Cadivi는 이 계획에 따라 수입용 외환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외환배정을 위한 기준환율은 외환거래가 중지되기 직전의 환율인 달러당 1,850볼리바르보다 낮은 1,600볼리바르로 결정되었으나, 현재 암시장 환율은 2,500볼리바르 수준이다.

외환통제 기간에 수입은 Cadivi로부터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수입대금의 결제도 통관완료 후 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실제 수입에 소요된 금액을 산정, 중앙은행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외환을 배정받아 이루어지게 된다. 통관 이전에 수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Cadiv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현지화(Bs) 보증금도 예치해야 한다. 외환통제의 실시와 경제 불황 지속으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수입시장은 당분간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영 석】

3) 동 조치는 1994~96년 중 당시 정부가 해외여행, 해외송금,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외환사용 쿼터를 설정하고, 수입용 외환도 생필품, 의약품, 기초 원자재 등에 대해서만 배정했던 외환통제 정책과 유사함.

4) 베네수엘라 원유의 배럴당 평균가격은 1999년 16.07달러, 2000년 26.60달러, 2001년 20.2달러, 2002년 22.2달러를 기록함.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은 총파업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1년과 비슷한 수준인 213억 달러(2001년 216억 달러)를 기록함.